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27~127p	해설	07 난도 ★ 정답해설 기술혁신으로 노동의 한계생산(ΔSP_1)이 증가하면 노동수요 곡선, 즉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13SP_2 = P \cdot \Delta SP_1$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 노동량은 증가하고, 균형 임금률은 상승한다. 08 난도 ★ 정답해설 독립적 경쟁시장인 다수의 공급자가 차별화(미이질적)인 상품을 공급하므로 공급자는 가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들은 완전하게 우월화하는 행위의 수요곡선에 직면하게 된다. 개별기업들이 우월화하는 행위의 수요곡선에 직면하므로 $MR=MC$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면 $P>MC$가 된다. 09 난도 ★★ 정답해설 • 기업 A와 기업 B가 동시에 전략을 선택하는 일회성 게임에서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은 (32, 14)이다. 균형에서 기업 A의 보수는 30이다. 우월전략은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이다. • 기업 A가 먼저 전략을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A의 우월전략은 (32, 14)이다. 균형에서 기업 B의 보수는 14이다. 10 난도 ★★ 정답해설 1급(first degree) 가격차별 또는 완전가격차별은 각 단위의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별의 지불능의 가격(가)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품 단위마다 가격은 다르고, 소비자당에는 전부 독점기업의 이윤으로 귀속된다. 1급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보상수요곡선과 한계수요곡선이 일치하고, $P=MC$가 성립하므로 완전경쟁시장과 같은 생산량을 생산하고 자원배분은 효율적이다. 11 난도 ★★ 정답해설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에 따라 최적의 소비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효용함수를 X와 Y에 대해 이용하여 한계효용을 구한 후 가격으로 나누어주면 각 재화 1단위당의 한계효용을 구할 수 있다. $MU_X = 6X$, $MU_Y = 2Y$이고 $\frac{MU_X}{P_X} = \frac{6X}{6} = X$, $\frac{MU_Y}{P_Y} = \frac{2Y}{2} = Y$이다. 이 조건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값의 소비조합은 (0, 60), 또는 (60, 0), (30, 30)이다. 12 난도 ★★ 정답해설 수요함수 $P=30-2Q$는 $Q=15-\frac{1}{2}P$이다. 가격이 10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 $e_p = -\frac{dQ}{dP} \cdot \frac{P}{Q} = -(-\frac{1}{2}) \cdot \frac{10}{10} = 0.5$이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1)이므로 곡선의 우상부분, 이 경우 총수입 $TR=PQ$을 증가시키려면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13 난도 ★★ 정답해설 콕-더글라스(Cobb-Douglas) 효용함수의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고 우하향하는 일반적인 형태라면 보상수요곡선은 항상 우하향하므로 일물재의 가법재(giffen goods)의 보상수요곡선도 우하향한다. 보상수요곡선(compensation demand curve)은 가격효과에서 소득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상대가격 변화의 효과만을 나타낸 수요곡선이다. 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만을 고려하여 도출된 수요곡선(이므로 소득효과)이 아닌 보충수요곡선과 일치한다.	갑의 효용함수는 원점에 대하여 오목한 형태인 타원형으로서 효용극대화는 내부해가 아니라 모서리부분에서 달성된다. 따라서 예산선의 X축절편과 Y축절편에서의 효용을 구한 후 이를 비교하여 효용극대화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예산선은 $6X + 2Y = 120$이고, ① $X=20, Y=0$에서의 효용 $U = 3 \cdot 400 + 0 = 1200$ ② $X=0, Y=60$에서의 효용 $U = 0 + 3600 = 3600$ 따라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최적소비조합 (X, Y)은 (0, 60)이다.

수정 사유

2022년 | 제3회 정답 및 해설 127

수정 사유	해설 오류
-------	-------

2022년 | 제33회 정답 및 해설 127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